

코로나19 두려움과 아동의 생활역량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연구

김웅수^{1*}, 김재희²

¹한일장신대학교 교수, ²한일장신대학교 박사과정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s of COVID-19 and Life Competencies of Children

Woong-Soo Kim^{1*}, Hee-Jae Kim²

¹Professor, Hanil University, ²Ph.D.student, Hani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두려움이 아동의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 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연구수행을 위해 K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아동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코로나19 두려움이 높을수록 아동의 생활역량은 낮아져 아동의 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코로나19 두려움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코로나19 두려움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위기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조절하고 생활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융복합적 개입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코로나19, 두려움, 생활역량, 스마트폰 과의존, 아동복지

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fear of COVID-19 on children's ability in life competency was examined,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dependence on this relationship was also verified. For this study, 250 children living in area K who were using smartphones were surveyed as research subjects. The major research results found that the higher the fear of COVID-19, the lower the child's ability in life competency, which affects the child's ability in life competency. And the fear of COVID-19 has been shown to affect smartphone dependence.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dependence on smartphones had a fu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fear of COVID-19 and their ability in life competency.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o promote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in social disaster crises such as COVID-19, a convergence intervention and pro-active strategy that can control children's smartphone dependence and improve their life's ability in life competency was presented.

Key Words : Corona-19, Fear, Life Competency, Smartphone Overdependence, Child Welfare

*Corresponding Author : Woong-Soo, Kim(holyws@hanil.ac.kr)

Received April 23, 2022
Accepted May 20, 2022

Revised May 6, 2022
Published May 28, 2022

1. 서론

코로나감염증-19(COVID-19)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게 되면서 글로벌 팬데믹(global pandemic) 현상으로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하였다. 코로나-19 상황은 사회적 혼란과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질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82.8%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 일상생활이 변했으며, 삶의 질이 전보다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1].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 바이러스인 COVID-19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은 폭발적 확산을 직접 경험한 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목격한 대다수 국민에게도 강력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있다[2, 3].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학교는 온라인 개학과 재택수업의 확대로 인해서 아동의 돌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양한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적 자본이 확대되고, 긍정적인 상호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스트레스와 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코로나19는 아동의 생활역량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신체활동을 줄여 비만으로 이어지고 있으며[4], 대면적 상호작용 기회의 부족으로 의사소통기술 및 사회성발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5], 감정 및 갈등조절에 있어서 분노와 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대면접촉은 줄어들고 있고, 일상적인 활동이 줄어들면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 두려움은 아동에게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생활역량에 영향을 주고 있다[7].

일반가정 아동보다 빈곤가정 아동의 생활역량은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빈곤가정 아동의 생활역량이 낮아지고 있다. 빈곤가정 아동은 코로나 확산 이후 또래관계 불안 및 학업성적 불안 등이 증가하고,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8].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 두려움과 아동의 생활역량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며, 일반 가정 아동에 비해 더욱 취약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빈곤가정 아동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은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생활습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 내 부모의 돌봄체계 부족은 아동이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노출되도록 방임되며, 게임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마트기기 매체에 대한 과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은 일반 아동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우울, 주의력 결핍, 공동체적응 어려움으로 이어졌다[9]. 코로나 19의 장기화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에 어려움과 생활역량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10]. 그러나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정책에 비해 아동의 생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연구는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이 아동의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과 동시에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변수 간의 모형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요인들의 관계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아동의 생활역량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인 실천과 정책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지역 11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중 현재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250명을 연구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최종분석 자료는 222부로 자료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아동의 생활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윤명희와 김진화[11]가 개발한 척도 2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형식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생활역량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생활역량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88로 나타났다.

2.2.2 독립변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은 2021년도 청소년 정신건강실태조사를 위해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에서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2].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높아질수록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척도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5로 나타났다.

2.2.3 매개변수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과의존 통합척도’ 10 문항을 사용하였다[13].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스마트폰 과의존의 전체 문항에 대한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2.2.4 통제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학교급, 가족형태, 경제수준, 학업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성별은 남성은 0, 여성은 1, 가족형태는 양친가정은 0, 양친외가정은 1로 부호화하여 활용하였다.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은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아질수록 경제수준과 학업성적이 좋을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생활역량,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하였다. 둘째, 아동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4]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 즉 매개회귀분석(Mediating regres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이 114명(51.4%), 여학생은 108명(48.6%)이었고, 응답자의 75.7%는 초등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형태는 응답자의 57.2%가 양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나머지 42.8%는 양친외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가족의 경제적 사황은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보통수준 이상으로(93.2%) 응답하였으며, 학업성적도 보통수준 이상이 83.4%로 나타났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Children

Variables	Category	N	%
sex	male	114	51.4
	female	108	48.6
school	elementary	168	75.7
	middle	44	19.8
	high	10	4.5
family form	prenatal parents	127	57.2
	step parents	95	42.8
economic status	very bad	6	2.7
	bad	9	4.1
	average	107	48.2
	good	48	21.6
	very good	52	23.4
academic status	very bad	9	4.1
	bad	28	12.6
	average	109	49.1
	good	47	21.2
	very good	29	13.1

3.2 주요변수의 특성

주요변수의 특성에 대해서 <Table 2>에서 살펴보면, 종속변수인 생활역량의 전체평균은 2.88(SD=.46),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의 전체평균은 2.40(SD=.75)으로 나타났으며, 독립변수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의 평균은 3.30(SD=.56)으로 ‘그렇다’ 이상으로 나타났다.

Table 2. Major Variables' Characteristics

Variables	N	Min	Max	Mean	S.D.
life competency	222	1.58	4.00	2.88	.45
smartphone dependence	222	1.00	4.00	2.40	.75
fears of COVID-19	222	1.00	4.00	3.30	.56

3.3 코로나19 두려움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

아동의 코로나19 두려움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 경로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아동의 코로나19 두려움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Table 3>와 같이 실시하였다. 1단계 분석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Table 3. Mediating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s of Covid-19 and Life Competencies

	model 1			model 2			model 3		
	B	β	t	B	β	t	B	β	t
constant term	1.807		5.023***	1.768		8.068***	2.061		9.214***
sex	.109	.073	1.125	-.057	-.062	-.957	-.039	-.042	-.678
family	-.176	-.116	-1.810	.077	.084	1.304	.049	.058	.843
school cluster	-.051	-.037	-.544	.243	.288	4.268***	.234	.278	4.265***
economic status	.062	.081	1.162	.092	.195	2.802**	.102	.217	3.212**
academic status	-.130	-.169	-2.484*	.093	.197	2.898**	.071	.152	2.281*
fears of COVID-19	.295	.302	4.696***	.051	.086	1.335	.099	.166	2.552*
smartphone overdependence							-.163	-.266	-4.051***
R ²	.139			.143			.204		
Adj. R ²	.115			.119			.178		
F	5.794***			5.973***			7.832***		
R ² Change	.139			.004			.061		
F Change	5.794***			0.179***			1.859***		

* $p < .05$, ** $p < .01$, *** $p < .001$

영향, 2단계 분석에서는 코로나19 두려움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코로나19 두려움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생활역량에 대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코로나19 두려움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모두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분석하여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2단계 회귀분석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제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매개효과가 있다고 본다.

모델 1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대한 아동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11.5%였으며, 이러한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아동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beta = .302, p < .001$)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2에서는 아동의 코로나19 두려움이 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9%의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였다. 통제변수 중에는 학교급, 경제수준, 학업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수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을 동시에 투입하여 분석한 모델 3의 결과, 생활역량에 대한 설명력이 17.8%로 나타났다.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독립변수인 코로나19 감염 두려움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6, p < .001$). 독립변수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역량에 대한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

마트폰 과의존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학교급, 경제수준, 학업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3.4 매개효과 분석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보다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Table 4>과 같다. Sobel test 결과는 코로나19 두려움과 생활역량의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스마트폰 과의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3.073, p < .01$).

Table 4. Sobel Test for Mediating Effect

Route	B(S.E)	Sobel's Z score
fears of COVID-19 → smartphone overdependence	.295(.063)	-3.073**
smartphone overdependence → life competency	-.163(.040)	

** $p < .01$

4. 논의

연구의 주요한 결과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19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질수록 아동은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지고 있어 외출 제한 및 활동 참여가 줄어들면서 가정 내에 머물면서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코로나 시기에 아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낮아 대부분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며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호작용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동은 가정 내 머물면서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게임 몰입 등으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이에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위한 예방과 개입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본 연구대상인 빈곤가정 아동은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의존에 대한 개입이 적절히 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과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는 스마트폰 중독 치료 및 상담교육의 전문기관인 지역사회 내 미디어중독예방센터, 청소년인터넷트림마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호협력하여 개입해야 한다.

둘째, 아동의 생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마트폰 과의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학교급, 경제수준, 학업수준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낮을수록,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학교급, 경제수준, 학업수준이 높아질수록 생활역량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생활역량은 신체, 사회, 정서, 인지 등의 능력으로 일상생활 또는 적응, 문제해결 및 상호작용을 통해 향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야 가능하다. 또한, 단순히 지역아동센터 활동만이 아닌 학교와 지역사회 내 기관이 아동을 위해 교육, 보건, 복지, 문화 등 다면적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는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아동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공중보건국은 가정 내 격리, 여가활동 폐쇄로 인해 심리정신건강, 가정 내 폭력, 약물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학교 내의 사회복지사와 협력하여 모니터링 및 안전망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사회 내 상시 소아과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여가 권리보장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15].

셋째, 본 연구는 아동의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생활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완전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는 아동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폰 과의존이 높아지고 생활역량에도 부정적인 영향력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아동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역량 향상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부모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동 돌봄은 양육자의 돌봄 공백 해소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적 돌봄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위기는 학교 및 지역 내 돌봄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체적인 사회적 돌봄이 함께 이루어져야 돌파할 수 있다. 단순히 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와 심리·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를 넘어서 꼼꼼한 예방과 지원체계가 요구되며, 또래 간의 상호작용과 놀이, 참여 활동 등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역사회 내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아동의 생활역량과의 관계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연구로 연구 결과를 통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과 아동의 생활역량, 스마트폰 과의존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서 아동의 생활역량을 지원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일부 지역과 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여 연구의 일반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는 아동의 생활역량과 관련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탐색하지 못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 S. Yoo. (2020). The 2nd Gyeonggi-do corona 19 risk perception survey. Gyeonggi: Gyeonggido Public Health Medical Support Team.
- [2] D. H. Lee, Y. J. Kim, D. H. Lee, H. H. Hwang, S. K. Nam & J. Y. Kim. (2020). The Influence of public Fear, and Psycho-social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Pandemic on Depression and Anxiety in Sou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2119-2156. DOI : 10.23844/ kjcp.2020.11.32.4.2119
- [3] S. Choi & M. R. H. Kim. (2021). Health Psychological Servic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ffects and Issues of Tele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6(1), 1-20.

UCI : G704-002010.2013.11.8.017

- [4] I. J. Chung, S. J. Lee, H. J. Kang. (2020). Changes in Children's Everyday Life and Emotional Condition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69(4), 59-90.
DOI : 10.24300/jkscw.2020.12.69.4.59
- [5] J. H. Joh. (2020). Influence of Untact Culture on both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Formation: Focus on the COVID-19 Pandemic.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14(3), 139-155.
DOI : 10.18015/edumca.14.3.202008.139
- [6] Goodneighbors. (2020). COVID-19 and Children's live: Children's Disaster Response Survey.
- [7] S. H. Shin. (2021). Mediating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Sleep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s of COVID-19 and Preventive Practices. Korea Convergence Society, 12(7), 337-347.
DOI : 10.15207/JKCS.2021.12.7.337
- [8] Y. M. Shin, S. B. Kwon. (2021). The relationship between changes in daily life and happines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poor families due to COVID-19.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25(2), 227-245.
DOI: 10.21459/kccr.2021.25.2.227
- [9] N. Y. Ha, G. E. Lee. (2021). Factors Affecti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phones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ail Sciences 21, 11(5), 2241-2256.
DOI : 10.22143/HSS21.11.5.161
- [10] S. J. Ju. (2021). Effects of Life Changes Due to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Their Caregivers: Focus on Busa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70(2), 67-99.
DOI : 10.24300/jkscw.2021.06.70.2.67
- [11] M. H. Yun, J. H. Kim. (2008). The Development of the Tests and Programs Aimed at Enhancing the Life Competencies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9(2), 173-197.
- [12] Korean Society for Traumatic Stress Studies. (2021). The Study on Mental of Korean Adolescents.
<http://kstss.kr>
- [13]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20). The survey on smartphone overdependence.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_bIdx=65914&bcIdx=23109&parentSeq=23109, Dez. 2021.
- [14] R. M. Baron,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 153-161.
- [15] Barnombudsmannen. (2021). ALLA TAR JU INTE ANSVAR: BARNKONVENTIONEN SOM LAG UNDER EN SAMHALLSKRIS. Stockholm.

김 응 수(Kim, Woong-Soo)

[장학원]



- 2001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사)
- 2003년 2월 :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07년 7월 : 브레멘대학교 사회복지학과(철학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아동·청소년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holyws@hanil.ac.kr

김 재 희(Kim, Jae-Hee)

[장학원]



- 2019년 2월 : 우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문학석사)
- 2021년 2월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과정)
- 관심분야 : 아동복지
- E-Mail : nite17@hanmail.net